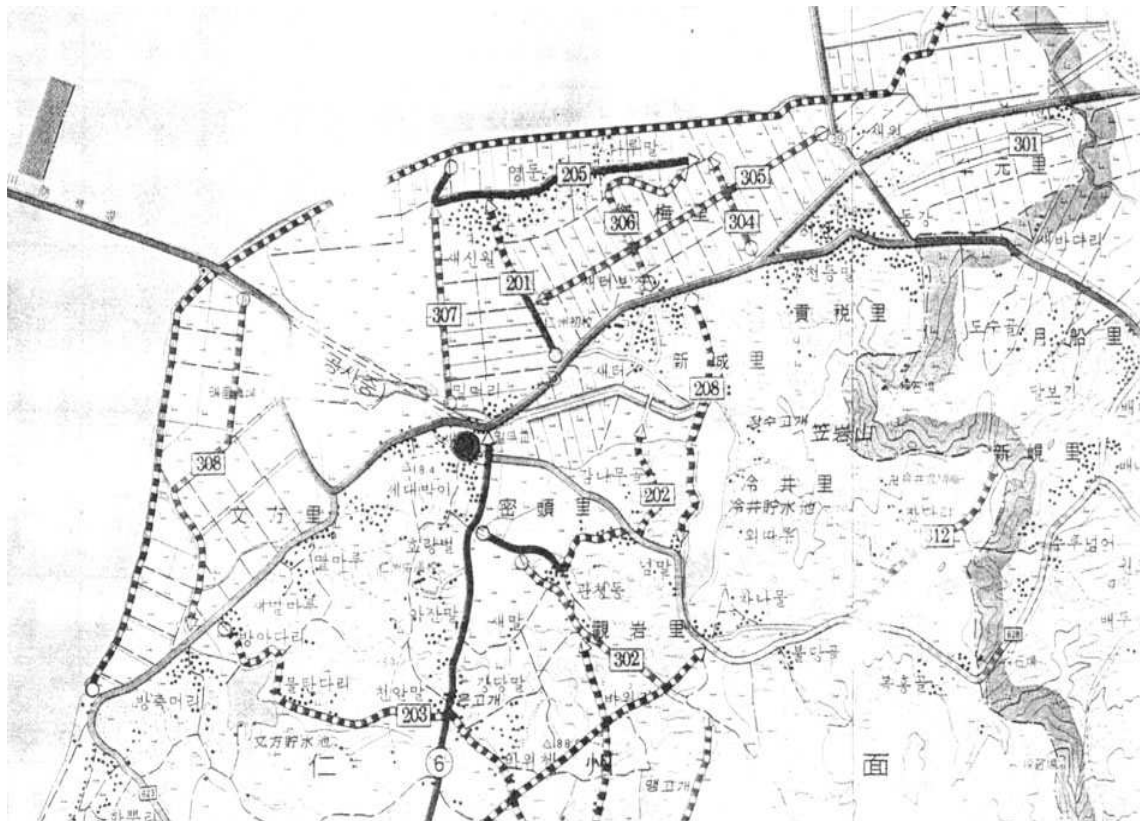


신성리·新城里

신성리는 인주면의 한마을로 작게는 너머말, 새터의 두마을로 나뉘며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신성리의 총인구는 479명이며 185가구가 살고 있다. 신성리는 본래는 아산군 일서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새터와 신흥면의 장수고개를 병합하여 신성리라 하고 인주면에 편입 되었다.

<신성리 위치도>



⊗ 새터마을

신성리의 새터마을은 가구수가 없던 당지산 밑에 마을이 생기면서 새롭게 일어난다는 뜻으로 새터라 하였으며 지형적으로는 두 마을로 보인다.

<조사당시 신성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치

신성리는 경도 126-54-10, 위도36-52-30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동쪽으로는 냉정리 저수지와 닿아 있어 냉정리와 구분되며 북으로는 갈매리와 닿아있다. 공세리와 밀두리 1구 사이에 있으며 면소재지에서 약1.5km정도 떨어져 있다.

2) 현황

인구분포 현황에서는 새터 마을의 총 인구수는 479명이며 총가구수는 185가구중 103가구인 56%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논이 83ha 밭이 37ha 총 120ha이다.

- 인구 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남자	여자
새터	479명	238명	241명

- 생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기타
새터	100%	56%	44%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새터	120ha	83ha	37ha

- 농기계 보유현황

구분 마을명	경운기	트랙터	양수기	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새터	50	8	10		15	40

- 문화시설

구분 마을명	마을회관	앰프	사물놀이악기	방송시설
새터	1	1	1조	

문화시설에서는 회관 앰프 악기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연령분포에서는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연령분포

구분 마을명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0이상
새터	50	35	40	60	70	98	80	33	13

- 성씨별 분포

구분 마을명	김씨	이씨	박씨	오씨	강씨	기타
새터	17%	8%	2%	9%	5%	59%

- 학생분포

구분 마을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새터	30	25	20	8

- 최고령자

88세의 오고복 할아버지이시다.

- 호당평균소득

약 년에 1,000만원

3) 자연경관

새터는 옛 부터 토지가 비옥하고 비교적 많은 농토를 가지고 있다. 가옥은 논밭이 있는 부근에 자리잡고 있으며 야산을 이용한 계단식 논이 발달해 있다.

4) 마을 변천 과정

본래는 아산군 일서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새터와 장수고개를 병합하여 신성리라 하여 인주면에 편입 되었다.

5) 입향

신성리에는 가장 오래 살고 있는 성씨는 해주 오씨로 현재 4대째 살고 있다.

6) 지명

너머말 : 새터 남쪽 고개 너머에 있는 마을

새 터 : 당지산 밑에 새로 된 마을

장수 고개 : 당지산 서쪽 고개에 있는 마을. 옛날 장수가 당지산에 토성을 쌓고 이 고개에 서부터 말을 달리었다함.

당지산(용두산) : 장수고개 남쪽에 있는산. 산체동이 있으며 모양이 용의 머리와 같다함. 성 자리가 있으며 말달리던 터가 있음.

공판들 : 너머말 앞에 있는 들. 전에는 벌판이어서 나무꾼들이 공을 쳤다함.
역 들 : 공판들 건너에 있는 들. 물 근원이 좋고 비옥하여 가뭄이 심한 때에도 벼가 잘됨으로 "흉년에 종자는 역들에 가서 구하라"는 이토정의 말이 있다함.

말달리던 터 : 당지산 꼭대기에 있는 터. 성 자위가 있고 평평한데 옛날장수가 말을 달리던 터라 한다.

새터 보장터 : 새터 앞 들에 있는 저수지 터로 현재는 논이 됨.

자동차 바위 : 공세리의 갯바산 아래에 있는 바위. 모양이 자동차 처럼 생겼음.

7) 전설

말달리던 터

인주면 가난한 한 선비가 궁색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가난하여 부인도 얻지 못하고 혼자 글이나 읽으며 시장기는 물로 채우고 날을 보냈다. 그런 어느날 시장 구경을 하다가 금붕어를 팔러 다니는 사람을 보았다. 그런데 그 통속에 검은 빛을 띤 놋이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안됐다는 생각이 들어 그 붓을 없는 처지에 사고 말았다. 그리고는 연못에 놓아준 후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밤 누가 부르는 소리에 잠이 깬 선비가 방문을 열어 보았더니 어느 아리따운 처녀가 반짝이는 검은 옷을 입고 절을 하는 것이었다. 영문을 몰라하는 선비에 게 그 처녀는 자기는 원래 용궁에 살았는데 육지 구경이 하고 싶어 나왔다가 그물에 걸리어 이런 신세가 됐다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밤이면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는데 일평생 육지에 사는 한 남자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만 있다면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하여 선비는 그 처녀를 아내로 맞았다. 어찌나 부지런한지 생활은 궁핍하지 않았고 행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장수가 지나가는 길에 선비의 아내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선비놈을 없애고 자기가 그 부인을 차지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런 결론을 내린 장수는 선비에게 내기를 걸었는데 세판 중에 먼저 두판을 이기는 자가 아내를 차지하기로 하였다. 선비는 어이가 없었지만 포악한 성질이 무서워 응하고 말았다. 첫번째로는 활쏘기를 하였다. 수십 미터 밖에는 과녁을 맞히는 일이었다. 장수는 쉽게 맞힐 수 있었으나, 이제까지 글만 읽으며 활이라고는 잡아본 일조차 없는 선비로써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첫번째 내기는 장수가 쉽게 이겼다. 두번째는 시를 지어 승부를 내었는데 그 것은 글만 대해온 선비가 이길 수 있었다.

그러자 약이 오른 장수는 세번째만은 가장 어려운 성 쌓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말을 달려 경주를 하자는 것이었다. 걱정이 태산같은 선비는 식음을 전폐하고 아내를 빼앗길 생각을 하니 분하기 짝이 없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아내는 용궁에 가서 용왕으로 부터 비루먹은 말 한마리와 작은 주머니를 가져와서 남편에게 내어주며 이것만 가지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자신을 가진 선비는 성을 쌓기 시작하였다. 작은 주머니를 풀어놓자 그 속에서는 작으면서도 힘이 센 난장이들이 수 없이 쏟아져 나와 순식간에 성을 쌓았다. 그리고 그 비루먹은 말을 타고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 속력이 눈에 보이지 않을만큼 빨라서 구경하던 사람은 물론 장수까지도 무척 놀랐다. 그래서 마침내 경주에 이긴 선비는 착하고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하고 성을 쌓고 자리로부터 말이 달리던 자리를 "말 달리던 터"라 하여 인주면 신성리 당지산 꼭대기에 아직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8) 전통놀이 및 집단행사

이 마을에는 많은 전통들이 사라지고 작은 마을계와 명절에 행하는 각종행사등을 통하여 서로 친목을 다지고 있고 매년 열리는 행사로는 1월 3일 산제당에서 산제와 어버이날 마을 어른들을 모시고 관광을 다녀오는 경로잔치가 있다.

9) 특별하게 소개할 만한 인물

이 마을에서 특별하게 소개 할 만한 인물은 조사 되지 않았다.

10) 종교단체

인주제일교회 인주면 신성리 206번지 목사 김경모 종파 : 기독교 대한 침례교
신성감리교회 인주면 신성리 186번지 목사 최인혁 종파 : 기독교 대한 감리교

11) 공장현황

명신 컨테이너 대표 이장렬 신성8-1 생산품목 : 코테이너 하우스

12) 마을의 특성

신성리는 34번 국도가 마을 중앙에 위치하여 교통이 매우 편리하며 아파트 단지의 조성으로
점점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다.